

에이핑크부터 체리블렛까지... 걸그룹은 연중무휴



아이돌 · 신인의 컴백과 데뷔 이어지며 뜨거워

걸그룹은 연중무휴다. 과거 1월은 연말 시상식과 연초 여러 행사로 비수기로 불리며 '빈집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한 아이돌과 신인의 컴백과 데뷔가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여름-걸그룹' 공식이 사라지며 에이핑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걸그룹이 가요계 등장을 알리고 있다.

9년차 걸그룹 에이핑크는 지난 주말 단독콘서트를 개최하며 컴백을 알렸다. 에이핑크가 단독 콘서트를 통해 공개한 미니 8집 'PERCENT(퍼센트)'의 타이틀곡 '%(응)'는 7일 정식 발매 후 주요 음원사이트 차트 최정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주소녀도 8일 'WJ STAY?(우주스테이?)'로 돌아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앨범 'WJ PLEASE?(우주 플

리즈?)' 이후 4개월 만에 돌아온 우주소녀는 지난 활동과 마찬가지로 중국활동으로 참여하지 못한 미기·신의·성소를 제외한 10인조로 컴백했다.

여자친구도 오는 14일 두 번째 정규앨범 '타임 포 어스(Time for us)'과 타이틀곡 '헤이'를 발표한다. 특히 걸그룹의 1월 데뷔와 컴백은 2015년 1월 데뷔한 여자친구의 성공 이후 좀 더 많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FNC 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체리블렛은 21일 데뷔를 확정했다. FNC에서 6년여 만에 선보이는 10인조 걸그룹 체리블렛은 현재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얼굴 도장을 찍고 있으며 데뷔 전 입에도 MBC '2019 설특집 아이돌스타 육상 불링 앙금 리듬체조 승부차기 선수권 대회'에 출연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과거 1월은 비수기로 걸그룹이 피하는 것은 옛말이다. 남자 신인 아이돌은 이젠에도 1월 활동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걸그룹은 몇년 전만해도 여름 시즌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나 일본 등 해외 일정을 피하다 보니 연초와 1월 데뷔와 컴백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트와이스, 레드벨벳, 마마무, 레드벨벳 등 대체로 꼽히는 걸그룹은 물론 신인 아이돌까지 최근 짝이 짝 컴백주기도 1월 컴백이 늘어난 배경 중 하나다.

가요계 관계는 "걸그룹은 보통 1년에 3~4장 정도로 신곡이 발표되면서 컴백주기가 3~4개월로 짧아지고 있다. 특정 계절 혹은 달에 걸그룹이 한꺼번에 컴백하기 보다는 아이돌 시장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기에 컴백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막영애17', 노처녀 주제는 종료...제2막은 육아활투극



더욱 강력해진 꼴조합과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고 돌아온 '막돼먹은 영애씨17'의 핵웃음 터진 첫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됐다.

tvN 불금시리즈 '투스타 유백이' 후속으로 오는 2월 8일 방송되는 '막돼먹은 영애씨17 (연출 한상재, 극본 한설희·백지현·홍보희, 제작 tvN / 이하 '막영애17')'측이 10일, 핵웃음 시너지로 불금을 접수할 '대전드 시리즈'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인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 2007년에 첫 선을 보인 '막돼먹은 영애씨'는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유일무이 국내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로 자리잡았다.

tvN의 개국공신이라 불릴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해 온 '막영애'는 대한민국 대표 노처녀 '이영애(김현숙 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직장인들의 고군분투와 삶을 현실적으로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현실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에 녹아있는 독특하고 참신한 유머, 하드캐리로 웃음을 제조한 배우들의 열연이 빛어낸 시너지는 매 시즌 레전드를 경신하며 '막돼먹은 영애씨'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왔다.

이번 17번째 시즌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노처녀였던 영애가 '막영애'에서 '막영애'가 되어 돌아온다. 공감을 저격하며 울리고 웃었던 영애가 엄마이자 아내, 워킹맘으로 펼쳐질 인생 2막, 육아활투극이 어떤 사이가 웃음과 공감을 선사할지 기대를 높인다.

특히 첫 대본 리딩에 참석한 멤버들에게 "어서와 '막영애'는 처음이지~"라는 재치 넘치는 환영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막영애'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대본 리딩 시작에 앞서 한상재 PD는 "진 시즌을 끝으로 초기 기획 의도였던 노처녀의 일과 사랑이라는 주제는 막이 내렸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즌은 육아활투극과 오피스 스토리가 될 예정"이라며 "제2의 도약이 기대되는 시리즈라 생각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이날 내공 짙은 연기 고수들이 거침없이 주고받으며 '뽕뽕' 터트리는 리얼한 연기 열전은 역시 '막영애!'라는 감탄을 자아냈다.

먼저, 김현숙과 이승준은 새 시즌에서도 완벽한 호흡으로 전쟁 같은 육아를 현실감 있게 그려냈다. 그동안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린 김현숙은 '막영애'로 돌아와 하드캐리했다.

될 하든지 '막영애 표' 사이타를 선사했던 김현숙이 그려나갈 육아 활투극은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쏠린다. 특히, 낙원사의 새 사장으로 등장한 정보석과의 앙숙 케미는 매 순간 웃음을 유발하며 기대를 끌어올렸다. 사뭇꾼 이승준은 여전히 철없는 남편과 초보 아빠의 모습을 오가며 이번 시즌 역시 '소름 끼치는'

활약을 예고했다.

"넣어줘! 넣어줘!"를 외치며 매 시즌 뜨거운 인기를 견인한 낙원사는 맛깔스러운 연기로 현상의 '웃음 제조기'를 자랑했다.

또한 윤서현, 정지순 역시 여전히 시그널과 바람 잘 날 없는 낙원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웃음을 이끌어냈다.

지난 시즌에서 승준의 사촌 동생이자 성인웹툰작가로 첫 등장해 안방극장을 폭소케한 이규환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능청 연기로 맹활약했다.

변하지 않은 매력으로 돌아온 영애의 가족 송민형, 김정하, 고세원, 정다혜 역시 유쾌한 애드립으로 '막영애'만의 재미를 더했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NEW 멤버의 등장은 꿀잰력을 높였다. 워든지 '뽕뽕'을 외치는 성격 급한 낙원사 새 사장으로 합류하게 된 정보석의 하드캐리는 그야말로 명불허전. 연기 베테랑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코믹 연기는 첫 대본리딩부터

낙원사 식구들과 퍼펙트 시너지를 발휘하며 웃음을 증폭했다. "좋은 드라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영애씨의 화갑잔치, 꿀벌이의 결혼식까지 그려지는 세계 최장수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힘을 잘하겠다"는 센스 넘치는 소감을 전하기도.

낙원사 신입 경리이자 반전을 가진 인물 '수아'로 연기에 도전하는 박수아는 자연스러운 사투리 연기와 너스레 좋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엄마 미소를 불러일으켰다.

이규환의 '자비리스' 여시스트 역을 맡게 된 연재형 역시 적재적소에 깨알 같은 연기로 신스틸러 활약을 선보이며 시선을 강탈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부진 각오와 함께 훈훈한 비주얼로 이규환과의 브로맨스도 기대케 했다.

tvN 새 불금시리즈 '막돼먹은 영애씨17'은 '투스타 유백이' 후속으로 2월 8일 금요일 밤 11시 첫 방송된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일련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웃음이 터진다. 재료는 뻔한데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가 신선한 재미를 만들어 낸다.

특히 진영은 이웃사이드 뽕뽕 고등학생부터, 조폭에 빙의된 고등학생까지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스크린 첫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박성용 라미란 김광규 등 인기 파 선배들과 어우러져 자신의 색깔을 뽐내며, 이제인 판수의 영혼이 빙의돼 액션을 펼치고, 대선배인 라미란과 로맨스를 펼치는 모습은 이 영화의 백미다. 진영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200%로 해내며 영화를 이끌어 나간다.

뽕뽕의 귀여운 연기를 펼치게

영화 '내안의 그놈', 재료는 뻔한데 재미는 신선해

어떤 특별한 이유로 몸이 바뀌어 버린 보디 체인저들은 시간 여행만큼이나 흔하다. 흔한 소재다.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클래식한 코미디 영화의 재료가 된다. '내안의 그놈'(감독 강효진)은 평범한 보디 체인저라는 패대에 흔한 로맨스와 부성애를 버무리고도 새로운 웃음을 만들어 냈다.

뽕뽕한 고등학생 동현(진영 분)은 학교에서도 '이씨(이우승 분)'로 지내는 인물이다. 동현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목상에 서 방향으로 추락하게 되고, 밑에 있던 엘리트 아재 판수(박성용 분)와

부딪쳐 영혼이 바뀌게 된다.

이웃사이드 고등학생과 엘리트 건달의 몸이 바뀌며 '아재가 된 아딩' 그리고 '소심한 고딩이 된 아딩'의 상반된 캐릭터로 웃음을 전한다. 진부한 설정으로 보이지만 중간중간 이 캐릭터들이 교차하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등장하며 신선한 웃음을 터져 나온다.

살아가는 아재 판수가 고등학생 동현의 몸에 들어간 뒤 학교를 다니는 모습이 웃음 포인트다. 분명히 '아재'였던 동현이 불량 학생들과 맞서며 쿨하고 멋지게 변해가는 모습은 재미와 쾌감을 전한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일련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웃음이 터진다. 재료는 뻔한데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가 신선한 재미를 만들어 낸다.

특히 진영은 이웃사이드 뽕뽕 고등학생부터, 조폭에 빙의된 고등학생까지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스크린 첫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박성용 라미란 김광규 등 인기 파 선배들과 어우러져 자신의 색깔을 뽐내며, 이제인 판수의 영혼이 빙의돼 액션을 펼치고, 대선배인 라미란과 로맨스를 펼치는 모습은 이 영화의 백미다. 진영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200%로 해내며 영화를 이끌어 나간다.

뽕뽕의 귀여운 연기를 펼치게

된 박성용은 '이중구의 캐릭터를 떨쳐내고 소심한 고등학생의 모습을 오글거리는 연기로 표현해냈다. 한참 어린 후배인 진영과 키스신까지 펼친 라미란은 영화를 들었다 놔다 하며 웃음의 중심에서 활약한다. 묘상에 남기는 아빠 김광규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수민 역시 극에 잘 녹아냈다. 보스를 지키는 의리 있는 부하 만철 역의 이준혁은 이 영화에서 자신의 인생 캐릭터를 만들었다.

보디 체인저라는 소재, 아이돌 출신 배우 주연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다분한 뻔한 영화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다른 생각 없이 웃음으로 밀어붙이는 B급 코미디의 새로운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

오늘의 순세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음력 12월 6일)



▶**띠** 타인 힘으로 뭘 얻어보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힘겨워도 내 능력과 재능으로 구상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2, 5, 9월생은 동업을 삼가라. 처음에는 웃음꽃이 피지만, 나중엔 눈물바다가 되니 조심할 것.



▶**띠** 고집 피우는 것만으로 세사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 5, 10, 12월생은 투자한 만큼 이익도 보겠으나 지출도 많아 적다.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을 듯. 한 길만 택해 진행하라. 2, 7월생 어업, 광업, 섬유업 종사자는 액운이 있으니 보증 서지 말라.



▶**띠** 사, 자, 천 성씨는 변동하거나 새롭게 구상할 때 가족과 의논해 처리해야 만사가 편할 것이다. 7, 8, 9월생은 혼자 해결하다 보면 원망은 모두 내가 산다. 매각이나 매매 계약 시 환우로 힘을 얻으라.



▶**띠** 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고부 갈등과 가족 신병을 유의하라. 자녀 문제라도 짜증스러운 날이다. 투자 금융, 보험업 직장인은 내가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감당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띠** 직장인은 동료 간 의견이 엇갈려 언쟁이 있을 수 있으니 상대를 존중하라. 기력이 왕성하고 자신만만하더라도 독선적이면 곤란하다. 7, 11, 12월생은 집안에 경사가 겹칠 운이다. 가, 사, 자 성씨 이상 문제로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



▶**띠** 직장 그만두고 시흥 준비 중인 4, 7, 11월생은 컨디션 잘 조절하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오, 모, 비 성씨는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생겨도 서쪽 사람 도움은 받지 말라. 외도를 숨기고 있으니 주의할 것.



▶**띠** 기력이 충분하더라도 일이 왕성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라. 직장인은 업무에 시달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고전하니 심신이 고달파다. 어려운 문제는 뒷사람에게 물어 해결하라. 사, 모, 증 성씨 3, 7, 10월생은 애정에 문제가 생긴다.



▶**띠** 때때로 당장 헤어질 것처럼 대판 싸우고 나면 스스로 길을 알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어찌 좋은 일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거짓 행위로 좋은 상황을 만들면 곧 물거품이 되니 진실을 추구하라. 길은 오직 하나다.



▶**띠** 몸과 마음의 피로가 쌓이는 날이다. 과로가 큰 병을 부른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9, 10, 11월생은 시기적으로 건기에 신경 써야 할 때. 개혁할 때는 젊은이 아이디어를 참고하라.



▶**띠**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덤씩 받지 말라. 특히 10, 11, 12월생은 서쪽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 선불리 맺은 계약이 크게 후회하게 만든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할 때.



▶**띠** 일을 만들기도 바빠 수습하라. 좋은 기회를 잡더라도 순간에 원점이 돼 버리니 주의할 것. 1, 5, 9월생은 상대 남성의 개인생활에 속지 말고 정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금씩 굴수록 토끼, 뱀이가 기회로 여긴다.



▶**띠** 단계를 밟아 나간 일이 결실하는 날이다. 성공의 계기가 만들어진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실익도 있는 길일. 집이나 사무실 개축은 좋다. 가, 비, 사 성씨는 욕심을 너무 드러내면 구설에 오르는 격이니 주의하라. 상대 입장을 배려하라.